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성공 추진 실행 동력 모은다

교육혁신 · 지역 상생 · 국제화 아우르다

JUIC 트라이앵글 구축
 AI 기반 지원체계 마련
 글로벌캠퍼스 조성 등
 글로벌30 지난 성과 공유
 지속가능 혁신모델 제시



전북대학교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행 동력을 모으는 성과공유회를 22일 오후 2시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연 가운데,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행 동력을 모으는 성과공유회를 22일 오후 2시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지난 성과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수봉 의위, 전북특별자치도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해 노내 대학 총장, 지역 산업계·공공기관 관계자, 글로벌대학 관계자, 대학 구성원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성과공유회는 글로벌대학사업추진 단장의 주요성과 보고와 AI 미래교육 AI 기반 진로취업 통합 플랫폼 'AI JOB', 지속 가능한 국제화 모델 등 3가지 우수 성과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JUIC 트라이앵글로 지역·산업협력 성과 가시화
 전북대는 글로벌대학사업을 통해 지자체·산업계·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JUIC 트라이앵글'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기반 산학협력 구조를 고도화해 왔다. 방위사업·이차전지·동물용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수주했고, 화학·전자공학·수의학 분야에서 223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등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선순환 성과를 거뒀다.

JUIC@새만금에서는 이차전지공학과를 신설했고, 이차전지 R&D) 캠퍼스 구축 및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시책을 진행 중이다. 모빌리티·친환경 이차전지 분야에서 6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했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HUB 특화 연구센터 개소, 방위산업융합전공과 첨단방위산업학과 신설, 국방사업관리사 교육대학 선정 등 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했다. 센

서·민도체 분야에서 600억원 규모의 민도체 공동연구소를 유치하고 삼성전자·한국연구재단 등과 229억원 규모의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학연융합공동캠퍼스 운영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교육과 산업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기반도 마련했다.

▲학생 선택권 강화 교육혁신, AI 기반 지원체계 구축
 교육혁신 분야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전북대는 무선공예(자유전공)와 융합전공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생이 입학 이후 스스로 전공과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과·전과 비율을 30%까지 확대했다. 모집단위 공개회를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의 75.9%를 무전공으로 선발했으며, 마이크로디그리와 학

생설계형 MD는 2년 만에 37개에서 103개로 늘어났다. 다전공 이수자도 꾸준히 증가해 학생 선택권을 중심으로 학사구조 개편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AI 기반 교육·학생 지원 혁신도 핵심 성과로 꼽혔다. 전북대는 AI를 활용한 학습·진로·취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생 개인의 학습 데이터와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진로·취업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 및 노내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신 생생영 AI 도구 및 첨단 디지털 기술 체험 공간(인프라)을 제공한다.

▲국제화 성과 확대... 남원글로벌캠퍼스 2026년 개교
 글로벌 혁신 성과 역시 두드러졌다. 전체 유학생 중 75%가 학위과정

으로, 전북대의 교육·연구 역량이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학생 5천명 유치의 거점인 JUIC 국제센터를 7호까지 선택해 유럽·남미 등 유학생 모진 거점을 확대했으며, 양방향 글로벌 하이브리드 강의는 2023년 8개에서 2025년 169개로 대폭 늘었다. 글로벌 PBL 다양화 지원을 통해 32개 프로그램에 266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 성과도 이어졌다.

지역사회의 공유 성과도 주목받았다. 도서관 등의 캠퍼스 공간과 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민 대상 평생·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학이 지역민의 학습과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난민지원과 협력해 난민지역 폐교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은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과 대학 국제화를 결합한 전국 최초의 모델로 제시됐다. 남원글로벌캠퍼스는 2026년 3월 1학년 학사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글로벌대학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와 함께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한 축하공연도 마르며 글로벌 캠퍼스 환경과 학생 중심의 사업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과와 우수 모델을 널리 확산해 새로운 혁신 동력의 기회로 삼겠다"며 "학생중심, 지역상생, 글로벌 허브 대학 도약을 위한 혁신 패러다임을 더욱 견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불법 현수막 근절 공정한 경쟁 약속”

전호성 전주교대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불법 현수막 근절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다. 전호성 교수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체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정책과 실력으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또 이를 철거하기 위해 세금도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을 따랐던 불찰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 교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겠다”며 “학교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 계획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과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도민 앞에서 치열하게 품격 있는 정책 토론에 나서자”고 다른 전북교육감 출마자들을 향해 불법과 비방 없는 선거를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자체감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감사원 평가 A등급 개선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포상행사 시상식에서 최고등급과 함께 교육지치단체 중 성과창상 부문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심사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심사를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심사에서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자체기구의 운영, 자체감사활동의 성과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년도 대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재무·인분·제도 개선 등 자체감사활동 실적이 크게 향상된 점을 인정받아 교육지치단체 중 성과 창상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내년부터 총94억원 규모 지역상생 추진

글로벌30 사업 선정 따른 핵심과제... 내년도 확정 사업 24건
 바이오·의료분야 연구개발, AI 기반 융합 플랫폼 구축 등

원광대학교가 2026년부터 총 94억 원 규모의 대형 지역 연계 상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원광대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 상생사업이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에 따른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생명 의생명 생명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도 확정 사업은 모두 24건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94억 원에 이른다.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유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와 의료 분야 연구개발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고품 의료 돌봄 기반의 생명서비스 산업 확대, AI와 데이터 기반 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등이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지역 산업 수요와 직접 연계해 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박성태 총장은 “이번 지역 상생사업 확정은 원광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했다. 이어 “사업 발굴부터 선정까지 현안적으로 노력한 원광가족과 적극적으로

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역 산업과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광대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생명산업 중심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의료 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한 의생명 분야 사업을 비롯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첨단 바이오와 스마트농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명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결실을 맺는 해외 교원 및 학생 초청 연수를 지난 15~20일까지 5박 6일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어로 잇고 마음으로 통하다’

전북교육청,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해외 초청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결실을 맺는 해외 교원 및 학생 초청 연수를 지난 15~20일까지 5박 6일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는 전북교육청이 주관한 2025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한국어를 매개로 해외 학교와의 국제교류 수업을 확대하고, 전북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인 K-에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미국 시애틀 태국 일본 등 3개국 한국어교육인 관계자 및 전북 학교와 국제교류 수업을 진행해 온 현지 교원과 학생 대표단 34명이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이어온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16일 개최된 2025 전북 국제교류수업 성과공유회는 이번 연수의 하이라이트였다. 도내 88개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국제교류수업 운영 성과 및 결과물 전시 △학생 소감 발표 △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유 △해외 한국교육인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해외 방문단은 성과공유회 외에도 전북 내 패트너 학교를 방문해 한국형 미래 교실을 참관하고,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미국 시애틀 지역의 한 교사는 “온라인 화면으로만 만나던 전북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올해는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전북의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마련한 해”라며 “초청 연수를 통해 구축된 해외 한국어교육인 및 학교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실태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실태점검의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은 14개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과 2개의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훈련일지 관리 △훈련환경(시설·장비) △선수 관리 현황 △대회 출전 현황 등 종합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회계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내년 1월 1일자... 승진 190명 등 총 831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인사 규모는 승진 190명(3급 1명, 4급 4명, 5급 22명, 6급 75명, 7급 87명, 8급 1명), 전보 467명, 퇴직준비교육 및 퇴직 61명 등 총 831명이다.

이번 인사로 조철호 본청 총무과장이 3급으로 승진, 신임 행정국장에게 임명됐다.

익산학생 교육문화관장에는 박성현 행정국장을 전보 발령했고, 전주학생 교육문화관장에는 이현규 부이사관이 파견 복귀했다.

서기관 승진자는 본청 △바탕규 총무담당 △이영주 비서실장 △최숙미 학생배치담당 △김태호 인사담당 총 4명으로, 각각 감사총괄담당·비서실

장·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군산대에 발령됐다.

서기관급 주요 보직에는 △안홍일 총무과장 △김중기 시설과장 △최원창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 △김현주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서유경 미래교육연구원 총무부장 △최정애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최희영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을 각각 배치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는 △교양행정직 전보화광제 적용 △고충 심사 결과 교육연수원 등을 반영한 순환 전보 △상생활동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또 승진 기회 확대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 요건에 부합하는 17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 학생들, 전북 인구소멸 위기 해법 제시 ‘호평’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들이 전북 지역 인구소멸 위기 해법을 제시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방학중경찰학부 양지원·정수빈·조윤형 학생은 지난 1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향정착학 동계학술대회 미래행정학자 세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현황분석과 청년유치 및 유지방안 연구 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국립군산대학교 KGNU Insigh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대학생이 직접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민호 기자